KARDIAN
카 디 안 자 산 운 용

판매회사
내부직원용

카디안 내일환매초단기채권 증권투자신탁[채권]

2026년 02월말 기준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 등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채권 (AA-이상), 단기사채 및 기업어음(A2-이상)(유동화포함), 양도성예금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추가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듀레이션을 0.3년 내외 수준을 목표로 채권, 단기사채 및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여 금리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955억 원

펀드유형 증권(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설정일

(운용펀드 : 2025년 01월 14일)

- 클래스 A : 2025년 05월 02일
- 클래스 A-E : 2025년 05월 02일
- 클래스 C : 2025년 04월 03일
- 클래스 C-E : 2025년 04월 08일
- 클래스 C-F : 2025년 01월 14일

벤치마크 Call 100%

신탁업자 우리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2영업일	2영업일
17시 경과후	3영업일	3영업일

투자위험등급 5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0.28%	0.83%	1.35%	2.83%	-	-	-	3.25%
클래스 A	0.27%	0.78%	1.26%	-	-	-	-	2.15%
클래스 A-E	0.27%	0.80%	1.29%	-	-	-	-	2.18%
클래스 C	0.25%	0.73%	1.15%	-	-	-	-	2.19%
클래스 C-E	0.27%	0.77%	1.23%	-	-	-	-	2.31%
클래스 C-F	0.28%	0.80%	1.30%	2.74%	-	-	-	3.15%
벤치마크	0.20%	0.63%	1.26%	2.61%	-	-	-	3.00%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출처: AITAS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02월말 기준)

<전체>

순위	자산명	비중(%)
1	채권	68.6
2	유동성및기타	31.4

<채권 종류별>

순위	자산명	비중(%)
1	공모회사채	68.6
2	유동성및기타	31.4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6년 02월말 기준 채권비중)

종목명	비중(%)
현대건설308-2	5.3
그린파인제일차 20251212-90-1(단)	5.2
케이비증권 20251226-90-20(단)	5.2
다올투자증권 20260102-90-1(단)	5.2
한양증권 20260108-89-3(단)	5.2

종목명	비중(%)
디알제십팔차 20260116-84-5(단)	5.2
엘오토월드제삼차 20260123-90-1(단)	5.2
롯데카드561-2	5.2
부국증권 20260205-88-17(단)	5.2
비에스에프플러스제일차 20260209-88-1(단)	5.2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0.179% (판매 0.1%)
- 클래스 A-E : 총 연 0.129% (판매 0.05%)
- 클래스 C : 총 연 0.379% (판매 0.3%)
- 클래스 C-E : 총 연 0.229% (판매 0.15%)
- 클래스 C-F : 총 연 0.089% (판매 0.01%)

(공통사항)

운용 0.06%, 신탁 0.01%, 사무관리0.009%

선취수수료

클래스 A: 납입금액의 0.3% 이내
클래스 A-E: 납입금액의 0.15% 이내
클래스 C, C-E, C-F: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월 초에는 국내 주식시장 강세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강화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어 30년 국고채 입찰 부진과 호주 RBA의 금리 인상 결정에 따른 호주 금리 급등 영향이 더해지며 국내 금리 역시 약세 흐름을 보였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2%를 상회하였습니다. 이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폭은 추가로 확대되었고, 3년물 금리는 약 3.27%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이후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구두 개입, 미국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시장 금리는 점차 하락 전환하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무효 판결 확정 소식으로 미국 재정 우려가 부각되었으나, 환급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관세가 다른 수단을 통해 재부과되면서 시장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후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 관련 긴장감이 고조되며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는 하락하였습니다. 아울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제시되었고, 새롭게 공개된 K-점도표를 통해 향후 6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금리는 추가 하락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월 말 대비 10.2bp 하락한 3.04%, 10년물 금리는 16.6bp 하락한 3.45% 수준에서 마감하였습니다. 단기물 금리의 경우, 3개월 AA- 여전채는 전월 대비 0.9bp 하락한 2.947%로 마감하였습니다. 동기간 펀드는 A2 등급 ABSTB 등을 매수하며 고금리 채권 비중을 확대했으며, RP 매수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 운용했습니다. 펀드는 BM 대비 약 9bp (보수 차감 후) 상회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2월 중 국고채 3년 금리는 기준금리 대비 80bp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책 당국의 구두 개입과 1분기 발행물량 축소 조정 등 채권시장 안정화 의지 및 2월 금통위 K-점도표 상 인상(1표) 대비 인하(4표)우세 결과 발표에 따라 국고 3년 금리는 고점 대비 25bp 가까이 반락하였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안정을 위해서는 지표 둔화 등 인상 우려를 불식시킬 모멘텀이 필요하나, 연내 동결 전망 우세함에 따라 채권금리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환율 상방 리스크는 미-이란 전쟁으로 인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이며, 원/달러 환율 1,400원대 장기화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분이 가공식품 및 서비스 물가로 전이되는 '2차 파급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5년 하반기 유가 급락에 따른 저물가 기저효과로 인해, 향후 국제유가가 현재의 박스권만 유지해도 에너지 물가 기여도는 플러스(+)로 반전될 예정이며 이는 소비자물가를 다시 밀어 올리는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2월 금통위 이후 인상 경계감이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잠재적인 '인상'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이란 사태 여파로 국고채 3년 금리가 재차 3.2% 수준에 근접한 가운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높아진 레벨에서 등락하는 흐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당국의 발행 물량 조절에 따른 3월 채권 공급 부담 완화 및 4월 WGBI 편입 실행 기대감 등은 금리의 추가 급등을 억제하는 상단 저항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향후 시장은 대내외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고점인 3.29%를 저항선으로 하는 박스권 등락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기 시장 또한 전쟁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에 기인한 크레딧 투자심리 위축 영향으로, 변동성 확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3개월 내외 종목 위주 편입을 지향하며, 3월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